

# 무안 기업도시 개발 '날개' 달았다

한중산단 개발계획 승인...보상업무 착수 11월중 공사 착공

1조7천억 투입 5만5천명 도시로  
국내산단은 주관사 포기로 차질

한국과 중국의 최대 경제협력지가 될 무안 기업도시 조성 사업이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으로 본격화되면서 한·중 교역 중심지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무안 기업도시 내 한·중 국제산업단지는 중국 정부가 해외경제협력구로 지정, 중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세계 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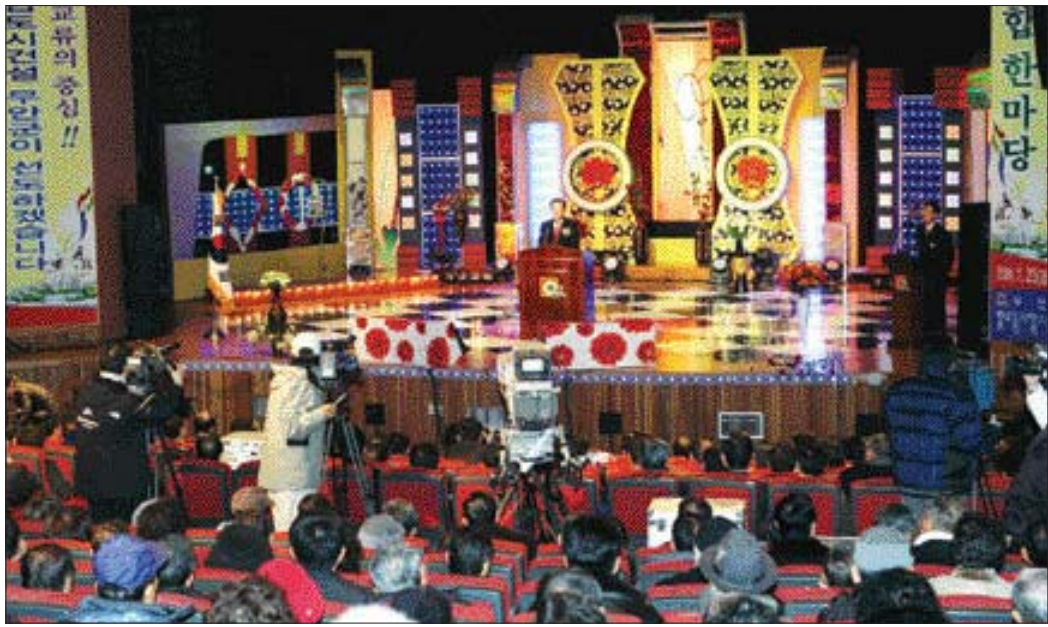
전남도와 무안군은 23일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강당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과 도·군의원, 출자사 대표 등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업도시 개발 어떻게=무안 기업도시는 무안 읍과 청계·현경·망운면 일원 32.95km에 오는 2012년까지 총 3조3천64억 원을 투자해 10만8천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자족형 도시로 조성된다. 무안 기업도시에는 한중국제산업단지(17.7km)와 국내기업단지(15.25km)로 나눠 개발된다.

이 중 한중국제산업단지는 지난 19일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 된다. 다만 국내 산단은 건설투자 주관사인 프라이姆 개발이 추가 출자를 포기함에 따라 자본금 확충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한중 산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국이나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쉬워져 국내 산단도 조만간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국제산업단지에는 한중 산단·차이나 도시·국제대학단지 등이 들어서고 국내산단은 항공물류단지·IT·생명공학산단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수주 주력산업이 복합적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한·중 국제산업단지=무안 기업도시 내 17.7km 부지에 1조7천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에는 ▲중국 산동성·중경시 단지 ▲차이나 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오는 2012년까지 5만5천명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자족형 복합기업도시로 건설된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23일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기념 군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도지사와 서삼석 무안군수, 박주선·이윤석 국회의원, 양작원 주한 주중대사관 상무공사, 도·군의원, 이동진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 두산중공업 을 비롯한 출자사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 무안 기업도시 (한중국제산업단지) 추진 일정 |                          |
|--------------------------|--------------------------|
| ▲2005년 7월                |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
| ▲2005년 12월               | =전담법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설립.    |
| ▲2006년 4월                | =중국 전담법인 동태화인유한공사 설립.    |
| ▲2007년 1월                | =중국 정부 한중국제산업단지 투자계획 승인. |
| ▲2007년 10월               | =중국상무부 해외경제협력지구 지정 승인.   |
| ▲2008년 7월                | =개발계획 승인신청.              |
| ▲2008년 10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2009년 1월                | =기업도시위원회 개발 계획 최종 승인.    |

동산산학, NH투자증권, 전남개발공사 등이다.

◇국내 단지=한중 산단 인근에 들어설 국내단지는 15.25km에 1조5천4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첨단산업단지와 항공물류단지, 통합 의학단지 등을 조성해 5만3천명이 거주하는 미래 첨단산업도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기업은 프라이姆 개발, 농협, 쌍용건설, 남화산업 등이다.

그러나 건설투자 주관사인 프라이姆개발이 추가 출자를 포기함에 따라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 및 기대효과=무안 기업도시 내 한중단지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중 국제산업단지개발(주)과 전남개발공사는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보상물건 조사와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축물 등의 보상 업무를 시작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실시설계 수립을 거쳐 11월 중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한·중 산단이 조성되면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는 물론 3만7천명 가량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전남 서남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 벼랑 끝 지역경제 활로는 없나

# 광주 기아차 점유율 33% 울산 현대차 점유율 80%

- 1 건설업 살려야
- 2 지방은행 BIS 낮추라
- 3 지역제품 사주자

주부 심모(54·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2006년 광주시가 펼쳤던 '우리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후 가능하면 지역제품을 사고 선물하는 것이 습관화됐다.

하지만, 올 설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아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쉽지가 않았다. 어떤 제품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없어 제품을 구분해서 고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 전체 업체 중 지역업체는 대부분 식품과 일부 침구류 등 3.5%~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은 전체 납품업체 450곳 중 4.7%인 21곳이 지역업체다.

신세계백화점 납품업체 중 지역업체는 전체 500여 곳 중 3.5%인 18곳에 불과하다. 이중 야채 판매업소인 수림유통과 즉석 반찬 판매소인 남도특비는 각각 지난해 대비 30.2%와 31.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 같은 성공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현대백화점도 납품하는 300여 곳 중 지역업체는 13%인 40곳에 그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비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며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역 업체의 납품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2007년부터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발

매량은 전국평균(20.9%)보다 7.2%포인트 높은 28.1%였으며 2008년에는 전국평균 25%보다 7.8% 증가한 33.5%로 지역민들의 기아차 사랑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기아차 공장 직원 7천500명과 250개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는 기아차를 고려하면 실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울산의 경우 현

## 백화점 지역업체 납품 비율 3~4% 불과 "지역제품 소비가 지역경제 살리는 지름길"

간해 판매촉진에 나서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과 협력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지역 생산업체 판매소'를 상시 운영해 지역업체들의 활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하루 평균 1천400대를 생산하며 광주지역 매출과 고용 30%를 책임지고 있는 기아차의 경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생산량의 30%를 감산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아차의 2007년도 광주지역 판

대차 점유율이 80%를 웃도는 것에 비하면 기아차의 광주 판매량은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도 중요하지만 업체들도 제품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용산 참사' 민심 대책 골몰 李대통령 설 연휴 정국구상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난마처럼 얽히고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데 상당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흐트러진 국정을 다잡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고민의 깊이가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베스트셀러 등 책도 읽고 할 것"이라면서 "내일과 모래는 일정이 없고 설 당일에는 친지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처럼 복잡한 국경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마음은 결코 편치 않다. '용산참사'로 인한 민심 추스르기 등 설 이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그 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고

민거리다.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9시부터 전체 공무원 49만여명에게 설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통해 전달될 격려 메시지는 "우리 사회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으로,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면서 "저와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가자"고 독려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연협뉴스>

## "美, 재협상 없이 FTA 비준 어려워"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전병헌 의원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미국 정계에서는 재협상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반면, 한국은 재협상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민주당 정

계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확실히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국가 간에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미 의회에서 재협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김 본부장은 "주의깊게 보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의에 온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2009학년도 입학시기  
**中國 명문대학** 신입생 모집

2009 중국대학 입학반 모집요강

모집대상: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중국인 학생

모집지역: 중국 전국

모집과제: 중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지리, 예술, 체육

모집장소: 한국교육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문의처: 한국교육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파이오니어(先驅者)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  
중국대학 입학반 모집  
대학을 디자인해드립니다.

**중국어(中國語)로 대학입학하기**

한국 중국

· **배경이 중요하다** -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 **입학비** - 2009년 12월 31일까지 접수  
· **학비** - 2009년 12월 31일까지 접수  
· **입학시험** - 2009년 12월 31일

· **배경이 중요하다** -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 **입학비** - 2009년 12월 31일까지 접수  
· **학비** - 2009년 12월 31일까지 접수  
· **입학시험** - 2009년 12월 31일

www.littlechina.co.kr

**광주일보 후원사**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